

경륜·경정의 상생... “경기력 문제 없다”

지난해 4월 이후 다섯번째 모의경주 재개장 위한 영업장 방역·전산 점검 선수 생계·직원 사무원 전환 노력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가 선수들의 소득공백을 메우고 경기력을 점검하기 위해 경륜·경정 무관중 모의경주를 진행하고 있다. 8일 열린 모의경주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경륜 선수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7일부터 15일까지 7회(경륜 4회, 경정 3회)에 걸쳐 경륜·경정 무관중 모의경주를 개최한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모의경주는 지난해 4월 말 첫 실시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모의경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간 휴장 중인 경륜, 경정 선수들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고 경기력을 점검해 경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경주 기간 동안 추후 안정적인 재개장을 위한 영업장 방역 및 발매와 전산 시스템 사전 점검도 실시한다.

참가 대상은 총 698명(경륜 539명, 경정 159명)으로 본인 사정이 있으면 제외된다. 1인당 1경주 출전이 원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경주 당일 입퇴소한다.

방역 계획도 철저히 세워 전 3단계에 걸쳐 체온 측정을 실시하며 경주 출전을 제외하고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선수 간 거리 두기를 위해 대기장소도 별도로 분리했다.

선수들 내 식사도 금지되며 모의경주 전후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모의경주지만 실제 경주처럼 발매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 전 영업장을 대상으로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등 점검해 추후 안정적인 재개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륜·경정선수 상생 방안 노력

경륜·경정 관계자는 이번 모의경주에 대해 “코로나19로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선수들의 소득 공백 또한 길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경륜·경정을 시행하는 공단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물론 공공재원 감소와 영업수지가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모의경주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8일 광명스피드 모의경주에 참가한 엄재천(B1 7기 광명 52세)은 “20년 넘게 현역으로 뛰면서 지난해처럼 힘든 해는 없었다”며 “갑자기 멈춰 선 경주에 무얼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언제 재개될지 몰라 출전 준비를 위해 몸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2월 부분 재개장에 한숨을 돌렸는데 2개월 만에 또 휴장을 하게 되어 앞이 캄캄했지만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생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 모의경주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경륜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주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경륜·경정 휴장기간 동안 휴업 중인 발매 직원 100명을 선발해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지원을 위한 사무원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경륜·경정은 2월 19일부터 부분 재개장했으나 영업장 소재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4월 12일 다시 휴장에 들어갔다. 재개장 일정은 고객과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 후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field@donga.com

경정 경기력 체크 ‘지정훈련’의 분석 포인트

출전선수 스타일·연습내용 미리 분석 화요일 제공하는 확정검사 비교 필요

코로나19로 경정은 개장과 휴장을 반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주가 꾸준히 이어져야 선수 경기력이 유지되거나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공백기로 인해 경정 팬도 선수의 실전 감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재개장을 앞두고 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훈련이다. 지정훈련은 화요일 입소 후 모터와 보트를 배정받고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하며 선수들의 수면 적을 위해 전 코스(1~6코스)에서 지정연습을 한다.

지정훈련을 관람할 때는 경정 선수들의 스타일을 미리 파악하고 관전과 연습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해당 회차 장비를 배정받으면 자신이 평소 세팅하는 그대로 모터와 프로펠러를 손보고 수면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다. 스타트와 확정검사 기록 면에서 1차에 비해 2차 연습 내용이 좋아졌거나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문가의 지정훈련 평가 및 화요일에 제공하는 확정검사를 비교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훈련도 실전같이 vs 감각 확보에 주력

첫 번째 분석이 장비세팅이라면 두 번째는 지정훈련 스타일이다. 선수마다 훈련 스타일이 다르다. 경정 최강자로 평가되는 심상철(A1 7기 39세), 어선규(A1 4기 43세), 조성인(A1 12기 33세), 한성근(A1 12기 34세), 류석현(A1 12기 35세) 등은 훈련도 실전과 같이 공격적으로 스타트를 하고 전술 또한 시속을 최대한 살려 주도권을 잡는 스타일이다. 해당 회차에 컨디션이 좋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 한 걸음 물러나 체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반대로 지정훈련에서 무리한 경쟁을 피하는 유형도 있다. 모처럼 마음에 드는 모터를 받았는데 연습 중 실수로 전복을 하거나 보트가 파손된다면 경기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인다. 권명호(B1 1기 52세), 이재학(B1 2기 48세), 이주영(A1 3기 39세), 김민길(A2 8기 42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습 때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실전에서는 맹활약해 입상을 하기도 한다. 모터가 좋으면 소개항주와 확정검사서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만큼 훈련 관전에 앞서 모터의 착순점과 최근 기록을 파악하는 것도 분석 요령 중 하나다.

임병준 쾌속경 예상분석 전문가는 “가속력이 중요시되는 온라인 스타트에서는 모터의 세팅을 바꾸고 출전할 수 있어 기록의 변화와 경주 전 사전 스타트 연습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입상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습 내용이 늘 실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경기력을 잃는 노하우를 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김포팀 25기 6인 자신감 수도권 명문팀이 보인다

정종진·인치환 중심...공태민 가세

경륜 김포팀 25기 6명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2019년 7월 출범한 김포팀은 총 23명이다. 자타공인 ‘경륜 챔피언’인 정종진(SS 20기 34세)을 중심으로 계양에서 한술밥을 먹던 황승호(S1 19기 35세), 김형완(S1 17기 34세), 정재원(S1 19기 35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양주팀 에이스였던 인치환(S1 17기 38세)과 정정교(S1 21기 31세)가 있고, 24기 훈련원 1위 출신 공태민(S1 32세)도 가세 세를 불렀다. 이처럼 막강한 전력에 25기에서 6명이 합류하면서 수도권 대표 명



2019년 7월 출범한 경륜 김포팀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25기 6명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훈련 중인 김포팀 선수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팀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새로 가세한 25기는 김민호 김용규 김태범 이재림 이진원 한택희 등이다.

이들 6명은 우수급에서 활약하며 급급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김민호(A1 30세)는 훈련원 동기 21명 중 졸업순위가 꼴

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4월 4일 광명 우수급 결승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용규(A2 28세)는 훈련원 졸업 순위 9위로 올 시즌 부산 우수급에서 연속 입상을 이어가며 합격점을 받았다. 김태범(B1 28세)은 훈련원 하위 20위에 비선수 출신이지만 4월 11일 광명 선발급 우승 등 올 시즌 6연승으로 ‘선발급의 정종진’으로 불리고 있다. 이재림(A1 26세)은 훈련원 8위 출신으로 막내임에도 지난 시즌 우수급 준우승에 이어 올 시즌은 우수급에서 83%의 삼연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진원(B1 31세)은 훈련원 순위 18위에 늦깎이 데뷔에 불구하고 올 시즌 선발급 6경주 출전에 1차 4회 2차 1회를 차지하며 녹슬지 않는 실력을 과시했다. 마지막으로 한택희(A1 27세)는 훈련원 순위 17위였지만 지난해 11월 15일 광명 우수급 결승

에서 선형 우승으로 멋진 신고식을 했다. 올 시즌은 코로나19 공백기 동안 결혼 준비로 인해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음에도 지난 3월 20일 광명 토요 예선 1차에 이어 21일 결승에서도 3위를 했다.

김포팀 25기 신예들이 의기투합하다 보니 곧 그 효과가 다른 지역 동기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박정우 경륜위너스 예상부장은 “김포팀은 ‘화수분’과 같은 팀이다. 전성기에 있는 고참 지도 아래 보물과 같은 신예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성장세인 신예들은 물론 훈련원 준비생들까지 모여 당분간 단점을 찾을 수 없는 팀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25기 신예들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올 시즌 말 졸업하는 26기 훈련원생 중에 어떤 인재가 김포팀을 노크할지 기대가 된다”고 했다. 김재범 기자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당면하자 센추리 냉난방기는 45년동안 전문화된 냉동공조기(외식)로 시공-입소를 냉난방기 전문회사라고 불리는 전문업체에 냉방난방 설치하고 구매후 3년 내후, 난방부도 구매했지

사장님이 구매하신 전기 36개월 할부는 초기비용 부담없이 무보증 무담보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소용은 유지비와 난방·냉방능력과 구입조건이 포인트입니다. 센추리는 이 4가지와 체계적인 A/S시스템과 사무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좋은 조건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쓰시고 확실한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 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